

분별과 결격

분별과 결격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알고, 옳은 것을 선택하며 그른 것을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살전 5:21-22** -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지난 몇 년간 이스라엘에서 저는 공동체의 지도자인, 귀중한 형제들 여럿이 스스로와 주변인들에게 죄를 짓고 해를 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전에 이미 무언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속으로 "감지"했습니다. 편안하게 그들과 이야기를 나눠 봤지만,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룰 순 없었습니다. 돌아보니, 제가 영으로 감지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고전 12:10 -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은사 중에 영 분별의 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사를 계발하여, 영적 위험들을 인식하고 응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 형제들에게 더 경고를 주고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구린 냄새"를 맡으면, 실제로 뭔가 썩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틀린 것을 분별하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시는 대로 직접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멀리 떨어지고 "손을 떼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함께 일하도록 부르심 받은 형제나 자매를 "결격"시키는 데에 신중해야 합니다. 모두에게는 일종의 문제가 있는데, 함께 가까이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부족한 점을 보고 고통 받고 좌절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습니. 그 성격적 결함이 하루 종일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스스로의 최선을 다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를 완전히 결격시키는 것에는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에게는 꾸준한 훈계와 격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사랑할 가치가 없으며, 심지어 "형제"도 아니더라는 판단을 하는 데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예수아께도 그 세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예를 요한 복음을 중심으로 찾아 보겠습니다.

1. **배경** - 어떤 이들이 예수아의 배경이 틀렸다는 이유로 그 분을 결격시켰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 **요 1:46 (요 7:41 비교)**. 그들이 보기엔 그 분의 역량과 생활 방식, 그리고 가정 교육이 다 그른 것이었습니다.
2. **친숙도** - 어떤 이들은 예수아께서 그냥 동네 목수였기에 매우 특별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예수아의 자매들 및 식구들과 친숙했습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 **요 6:42**.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 **마 13:55-56**. (자기 여동생의 행실을 가지고 판단 받고 싶은 사역자가 있을까요?)
3. **동기** - 예수아의 형제들조차도 그 분의 동기를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유명해지기를 갈망하여 그러시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 **요 7:4**. 때로 우리는 한 형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모습을 보고 잘못된 동기로 하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4. **인정** - 때로 우리는 다른 유명인사들에게 인정을 받았느냐로 형제를 판단합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 **요 7:48**. 누군가에게 학위가 있다거나 많은 존경을

받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가 주님의 뜻대로 일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이들의 인정이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의 평가를 결정할 순 없습니다.

5. **소문** – 예슈아를 많은 이들이 결격시켰던 것은 그 분의 어머니에 대한 성적 부도덕의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동정녀를 통해 태어나셨다는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 요 8:41. 여기서 보기에, 주님께서 합법적인 혼인 관계 가운데 출생하지 않으셨다고 빈정거리는 이들이 유년기 내내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요 9:34 비교)
6. **정신적 문제** – 예슈아께서 하신 일들과 말씀들이 모두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가 이해하지만, 주님 곁에 있었던 많은 이들은 그 분께서 미치셨거나 귀신 들리셨거나, 실성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 요 10:20. (요 8:48-52 비교)
7. **전통** – 예슈아께서는 안식일을 어기셨다는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곧 십계명의 위반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 요 9:16. 예슈아께서는 안식일을 범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기대하는 방식대로 주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세워놓은 기준에 맞게 행동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실로 죄를 범하고 있다면, 죄에 대처하는 데에는 성경적 절차가 있습니다. 마 18:15-17 –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마태복음 18장 중간에 등장한 다섯 절짜리 훈육의 과정은 타인에 대한 일방적 용서를 요구하는 30절에 달하는 말씀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것은 정죄와 고소의 영에 미혹될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의 태도에 대한 균형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훈육의 과정이 끝까지 진행되었다면, 그 범죄한 사람은 공인된 지도층이 이사회를 하여 "사권을 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마음 속에서 누군가를 "파문시킬" 권리가 없습니다. 어떤 이는 실제로 공동체에 속한 모두를 결격시키고 사권을 중단하여서, 살고 있는 도시 내의 어떤 공동체에도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영들에 대하여 분별력을 사용하고 훈육의 과정에 협력하며, 형제 자매들을 속으로 결격시키는 일을 방지하는 데에 은혜와 용기 주시기를 축원합니다.